

전망이론과 핵 정책의 결정요인

: 북한과 리비아 사례 비교

박상운 (고려대학교)

논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과 리비아가 핵 정책에 있어서 상이한 결정을 내린 요인을 전망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 리비아는 핵을 포기했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북한의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강한 핵개발 의지를 가지고 내부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반면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제적 고립 심화와 내부 위기가 통제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체제 유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의 제지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정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손실영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회피 전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2001년 부시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으로 인한 안보위협 증가로 손실영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 무역 확대와 해외 무기거래를 통해 손실감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적극 활용했다.

따라서 북한과 리비아가 공통적으로 국내외적 위협으로 손실영역에 있었지만, 국제제재의 효과와 내부 통제력의 유지 여부에 의해 핵개발 지속 여부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망이론, 손실영역, 위협감수, 핵개발

I. 문제제기

1950년대 북한이 핵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북한 핵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engagement policy), 클린턴 행정부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군사적 조치(limited military option) 고려, 부시 행정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 시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등 북한을 상대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한국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UN),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동북아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북미 양자회담과 6자 회담의 북핵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핵위기 발생, 핵합의 타결, 합의 붕괴의 악순환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북한 핵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¹⁾ 북한 핵은 1991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필요성, 외교적 협상 카드, 체제 내부결속, 정권수호 등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 특히, 북한의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개발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핵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북한의 행위를 국제정치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들은 국내정치와 달리 중앙집권적인 권위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정치의 무

1) 전봉근, “북핵 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호(통권 72호), 2011, pp. 186~190.

2)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5권 2호, 2009, pp. 97~101.

3) Daniel Byman and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p. 73.

정부적 상태 하에 있어서 스스로 생존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주의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⁴⁾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체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신현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국가는 권력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면서 안보 극대화를 추구하고 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이익에 더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협력하기 보다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무정부 상태에서는 국가들 간의 상대적 능력에 의해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변화가 국제체제의 구조를 결정한다.⁵⁾ 이러한 설명은 복잡한 국가 간의 관계를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 비교적 간결하게 제시하고 강대국의 수에 따라 국제체제를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유형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국내 정치적 상황 등 개별 국가의 특성이나 국가 간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즉, 여러 국가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는가에 따라 정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신현실주의의 한계를 고려하면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제관계이론들은 행위자의 성향과 인식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보면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측면들을 외교정책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카네만과 트버스키(Kahneman and Tversky)가 주장한 전망이론이 등장하여 이익의 관점이 아닌 손실의 관점에서 국가들의 외교정책 결정을 분석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현실주의가 상대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행위를 설명해 온 점과는 달리, 전망이론은 손실의 관점에

서 국가들이 가지는 상대적 손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⁷⁾ 단, 전망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들이 손실영역에 있다고 해서 위험감수적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영변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제거하여 원전을 재가동하고 IAEA를 탈퇴하였고, 이에 미국이 영변폭격을 준비하자 북한은 카터 전 대통령과 협상을 했다. 즉, 대외적인 위협이 고조되어 손실영역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북한이 위험추구적인 더 극단적인 도발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감수적인 협상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 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각 국가가 당시의 특정한 국내외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과 리비아가 핵 정책에 있어서 상이한 결정을 내린 요인을 전망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 리비아는 핵을 포기했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는지를 국내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전망이론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전망이론의 의미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손실영역 하에서도 국내외적 조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정책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제4장에서는 리비아의 핵개발을 포기한 사례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II. 전망이론

한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도자 개인, 관료조직의 집단 의사결정, 문화와 국가정체성, 국내정치 행위자, 국가적 속성과 국제체제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북한 핵문제의 경우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54, p. 34.

5)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ss.: Addison-Wesley, 1979, pp. 107~111.

6) Ole R. Holsti, "The Political Psychology of International Politics: More than a Luxury." *Political Psychology*, Vol. 10, No. 3, 1989, p. 497.

7) 황지환,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pp. 10~18.

국제체제의 구조를 주요한 독립변수로 두면서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설명한 기존 연구들이 있다. 홍성후는 미·일 대(對) 중·러의 동북아 안보 환경을 독립 변수로 두면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개입정책 강화와 일본의 군비증강 축진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협상카드이지 핵보유국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⁸⁾ 그리고 손용우는 국제체제의 구조를 들면서 냉전기에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과 안보딜레마를, 탈냉전기에는 붕괴된 세력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핵개발을 지속한다고 본다.⁹⁾ 즉, 동북아 국제체제의 구조 하에서 북한이 안보의 극대화를 위해 핵개발을 해왔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북한 핵개발 목적의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이호령은 국가들이 핵개발 원인의 3가지 필요조건으로 핵 기술의 이전과 발달, 안보적 위협, 전략적 필요성을 들면서 북한을 대상으로 비가시적인 핵개발 시기(1960-1985년)와 가시화된 핵개발 시기(1985-1994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¹⁰⁾ 그리고 이현경은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핵 억지력 보유, 체제보장, 대미 관계정상화, 대규모 경제적 혜택 확보로 보고 있다.¹¹⁾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국제체제의 구조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국가 내부의 특성에 의한 영향을 간과할 수 있고,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제시하다보니 어떤 요인을 더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는 지도자 개인의 의사결정 변수가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제체제의 특성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연구의

분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의 특성이나 지도자 개인의 의사 결정과정 등의 분석을 통해서 체제 수준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국가 간의 상이한 정책 결정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와 파키스탄의 핵보유 유지 사례를 비교하면서 당근과 채찍이 각 사례별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분석한 연구¹³⁾가 있는데, 이 연구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아니라 국가 수준의 분석을 통해 제재나 경제적 지원이 국가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망이론을 적용해서 북한과 리비아의 핵 정책 결정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전망이론은 정치심리학적 측면에서 지도자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 조건과 국외적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체제 내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망이론을 소개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카네만과 트버스키(Kahneman and Tversky)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정치지도자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영역효과(frame effect) 즉, 이익영역과 손실영역 가운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회피할지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들은 실험으로 전망이론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피실험자에게 2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게임을 통해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벌 수 있는 경우(선택1)와 4000달러를 80%의 확률로 벌 수 있으나 20%의 확률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경우(선택2)이다. 두 번째는 게임을 통해 100%의 확률로 3000달러를 잃는 경우(선택3)와 80%의 확률로 4000달러를 잃거나 20%의 확률로 어떤 손실도 보지 않는 경우(선택4)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기대효용이론(Expect Utility Theory)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게임에서 사람들은 기대효용이 높은 선택2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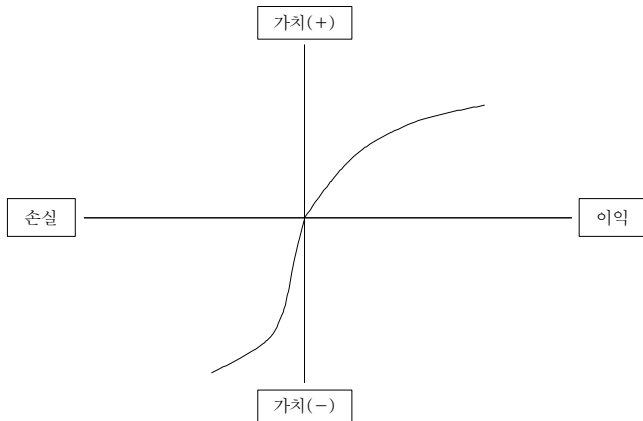
8) 홍성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논총』 제55집, 2010, pp. 143~160.
 9) 손용우, "신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 (1945~2009),"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2, pp. 257~280.
 10) 이호령, "북한 핵개발의 원인 분석: 북한의 시각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10호, 2001, pp. 97~116.
 11) 이현경,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2008, pp. 129~148.
 12) 벨러리 허드슨 저, 신옥희 외 역,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7, p. 69.

13) 유진석, "비확산정책에서의 당근과 채찍: 기존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1호, 2008, pp. 161~184.

두 번째 게임에서는 기대효용이 높은 선택3을 선택한다고 본다.

하지만 전망이론은 이와는 정반대의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첫 번째 게임에서 사람들은 기대효용이 높은 선택2 보다는 기대 효용이 낮은 선택1을 선호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도 사람들은 기대효용이 높은 선택3 보다는 기대효용이 낮은 선택4을 선호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보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높은 기대효용을 가진 것보다 위험이 적은 안전한 것을 선택하는 위험회피(risk-aversion)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감수(risk-taking) 경향을 보였다.¹⁴⁾ 즉, 전망이론은 인간이 이익영역에서 선택할 때는 안전한 것을 선호하고, 손실영역에서 선택할 때에는 모험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행위자가 어떠한 상황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반드시 효용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기대효용과 반대된다.

<그림 1> 전망이론의 곡선



출처 : Kahneman and Tversky(1979), Ibid, p. 279의 곡선을 재작성함.

14)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1979, pp. 266~273.

<그림 1>을 보면, 전망이론의 곡선은 손실영역과 이익영역에서 모두 점차 기울기가 낮아지는데, 이는 이익과 손실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출발점이 어디인가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출발점에서 가까울수록 더 큰 손실감을 느껴 위험추구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익영역보다 손실영역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은 행위자가 같은 크기의 자극을 받더라도 이익영역에서 보다 손실영역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이와 관련해서 저비스(Jervis)는 사람들은 100달러를 벌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더 큰 우울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위험감수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손실영역에서의 잘못된 판단은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⁶⁾ 이러한 전망이론의 논리를 적용해 국가들의 외교정책결정을 분석한 다양한 사례연구들이 존재한다.

먼저 맥더모트(McDermott)는 전망이론을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사건, 소련의 미국 정찰기 U-2격추, 1956년 수에즈 운하 분쟁에 적용해 설명한다. 세 가지 사례 모두 정책결정자가 손실영역에 속해 있었고 이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¹⁷⁾ 그리고 박상현은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은 미국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선택한 위험감수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손실영역에 위치하게 되어 모험적이고 위험 추구적인 대 테러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¹⁸⁾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도 아르헨티나 군부가 경제침체와 민주화 요구로 인해 손실영역에 있었고 이로 인해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¹⁹⁾ 북핵 문제를 전망이론으로 설명한 황지환은 북한 지도부의 대내

15) 박상현,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미국 외교: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반 테러전략과 한반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1호, 2008, pp. 139~140.
 16) Robert Jervis, "Political Implications of Loss Aversion," *Political Psychology*, Vol. 13, No. 2, 1992, p. 187.
 17) Rose McDermott, *Risk-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spect The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pp. 45~164.
 18) 박상현(2008), 위의 논문, pp. 142~143.
 19) 박상현, "비대칭 분쟁과 약소국의 선택: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관점에서 본 포클랜드 전쟁."

외적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외교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북한의 핵정책 변화는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1차 북핵 위기 때는 충돌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2차 북핵 위기에서는 유화정책에서 충돌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한다.²⁰⁾ 그리고 1950년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은 중국 지도부가 자신들이 참전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에서의 현상유지가 불가능하고 중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참전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이 감수해야 할 손실을 회피하고 동북아의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걸프전쟁을 전망이론으로 설명한다.²¹⁾ 이처럼 전망이론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가의 위험 감수적 또는 위험 회피적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실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도자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상황을 손실로 인식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위험 감수적 행위로만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²²⁾ 예를 들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과 소련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동일한 문제에 대해 국가들이 다른 결정을 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망이론이 제시하는 손실영역에서 반드시 위험추구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위험 감수적이 아닌 위험 회피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리비아의 핵 정책에 있어서 상이한 결정을 내린 요인을 전망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어

떤 조건으로 인해 리비아는 핵을 포기했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는지를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전망이론과 지도자의 정책결정

2003년 리비아는 핵을 포기한 반면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개발한 것이 밝혀지면서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요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국외적 상황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이 핵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전망이론에서 설명했듯이 지도자가 손실영역에 있을 때에는 위험감수적 전략을 채택한다. 그러나 위험추구적인 전략이 정권 붕괴나 전쟁 즉, 손실영역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예상될 경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반대로 위험 회피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카네만과 트버스키(Kahneman and Tversky)는 기존의 전망이론을 발전시킨 누적적 전망 이론(Cumulative Prospect Theory)을 통해 행위자는 이익을 위한 위험회피, 높은 가능성의 손실을 위한 위험 추구, 이익을 위한 위험 추구, 낮은 가능성의 손실을 위한 위험 회피라는 네 가지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아주 모험적일 경우 위험 감수가 아닌 위험 회피적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²³⁾ 즉, 지도자는 손실영역에 있을지라도 극단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위험 회피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국가 간 전면전이나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²⁴⁾ 따라서 김정일과 카다피의 국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핵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2007, pp. 53~69.

20)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2006, pp. 86~96.

21) 황지환(2007), 위의 논문, pp. 15~18.

22) Jack S. Levy, "Prospec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etical Applications and Analytical Problems." *Political Psychology*, Vol. 13, No. 2, 1992, p. 300.

23)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Advances in prospect theory: Cumulative representation of uncertain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Vol. 5, 1992, pp. 299~316.

24) 황지환(2006), 위의 논문, pp. 83~84.

● 연구가설1 : 카다피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인식하고 정권 붕괴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핵을 포기한 것이다.

한편 대외적 변수 이외에도 대내적 변수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였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부시대통령은 럽스웰드 국방장관을 사임시키고 대북 강경책에서 협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 여론이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권위주의체제나 독재체제 보다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에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나 리비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은 일당 독재와 이념적 교화, 비밀경찰, 상시적인 감시와 처벌 체제의 총체적 지배를 통해 전체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²⁵⁾ 특히,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하여 절대적 충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국내적 상황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로즈나우(Rosenaue)가 예비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소국이고 후진국이면서 체제의 개방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개인-체제-역할-정부-사회 순으로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²⁶⁾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핵기술을 활용해 핵개발을 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핵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 연구가설2 : 김정일은 국내체제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핵 포기 동기를 가지지 않은 것이다.

25)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2』, 파주: 한길사, 2006, pp. 150~218.
26) 구분학 외, 『세계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p. 130.

IV. 사례분석

1. 리비아 핵무기 개발 및 포기 분석

리비아는 1969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아랍 지역에서의 지위 확대를 목적으로 핵무기 관련 부품들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아랍계 과학자들에게 핵무기 개발 기술 전수를 요청하였으며 구소련,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 등과 핵 프로그램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1980년대부터는 민간 용도의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를 점차 군사적 용도로 전환한다. 이에 1983년 미국은 리비아 과학자들에 대한 핵 관련 교육 및 기술 이전을 금지시킨다. 1993년부터 리비아는 원심 우라늄 고농축 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과 핵 기술 이전 금지로 핵보유 및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리비아는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의 국제 핵 밀매조직을 통해 원심분리기 완제품과 부품들을 들여와 핵개발 계획을 진행한다.²⁷⁾ 1997년 리비아는 처음으로 핵 개발을 연구할 수 있는 정도의 2개의 P-1 원심분리기와 관련 부품 200개를 들여왔다. 그러나 그 부품들로 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핵 부품 생산라인을 갖출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다. 이에 리비아는 칸 박사가 완전한 원심분리기 시설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였고, P-1보다 더 개량된 P-2 원심 분리기 1000개와 시설 설계도를 얻을 수 있었다.²⁸⁾ 하지만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핵무기 습득 및 개발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리비아의 무기 수출은 자체 무기 제조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다.

27) 조명철 외,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연구보고서 10-2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p. 48~51.

28) Gordon Corera,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Q. Khan netw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08~109.

<표 1> 리비아의 무기 수출 규모

단위: 백만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차드		3										3
자이레						10						10
나미비아										11		11
니제르					3							3
짐바브웨											16	16
계		3			3	10				11	16	44

출처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http://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검색일: 2013.6.18).

<표 1>을 보면 전반적으로 리비아의 무기 수출 규모는 매우 작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2년부터 유엔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리비아의 무기거래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당시 카다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고 핵보유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핵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핵무기를 직접 생산하기 보다는 동일한 독재국가로부터 핵기술을 구매 및 보유하려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 즉, 자체적인 핵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북한과 달리 리비아는 핵개발 기술이 시작 단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리비아는 1988년 미 팬암기와 1989년 프랑스 민간항공기를 폭파하였고, 이에 관련국들은 1992년 4월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731호, 제748호, 제883호를 통해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은 1996년 이란 리비아 제재법(ILSA: Iran Libya Sanction Act)을 통해 리비아의 테러지원과 대량살상무기 획득에 도움을 주는 모든 국가에 경제제재를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리비아는 더 이상 석유수출을 통해 국부를 쌓아 핵무기 개발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난은 심화되었다.

<표 2> 리비아 경제지표 추이(1992~2003)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2.7	-3.8	1.9	-12.4	2.6	-0.6	-0.4	0.5	3.7	-1.8	-1.0	13.0
인플레이션	9.5	7.5	10.7	8.3	4.0	3.6	3.7	2.6	-2.9	-8.8	-9.9	-2.1
수입	-21.6	13.0	-25.3	-11.8	16.2	7.9	-25.7	3.8	-10.8	20.6	49.9	15.5
수출	-6.9	-7.3	-6.6	49.8	-15.0	2.5	-6.4	1.8	8.7	-24.6	-14.1	28.4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3, <http://www.imf.org>(검색일: 2013.6.18).

<표 2>를 보면 리비아의 경제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GDP는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도에는 수출이 급락하고 수입이 급등해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카다피로 하여금 국내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고 더 이상 핵무기 개발로는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정치적 조건에서 보면, 리비아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라크전이 종료된 이후에 리비아가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이다. 이에 리비아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3년 3월 미국과 영국에 특사를 파견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의사를 밝히고 미국과의 비밀 협상을 시작하였다. 결국 2003년 12월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포기를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 리비아는 IAEA 사찰단의 사찰을 허용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해체 및 반출하였다. 이에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석유수입을 재개하였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 조치를 완료하였다.²⁹⁾ 따라서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핵 포기론 나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⁰⁾

정리하면, 초기에 리비아의 카다피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위협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즉, 당시에 카다피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서 손실영역에 있었고 이에 다른 국가들과의 핵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위협추구적인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내 경제가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고 카다피는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미국 부시 행정부가 중동국가인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가설2의 주장처럼 카다피는 국내의 체제 불안정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손실영역에서 선호의 역전이 발생해 위험회피 전략을 추구하여 자신의 생존을 보장 받으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의 핵개발 과정 분석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과 1959년 11월 9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개발을 시작했다. 1962년 소련이 영변에 실험용 원자로를 지원하게 된다. 1965년 11월 6일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고, 1985년 12월 12일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게 된다. 1990년

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하였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와 남북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은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IAEA의 임시 핵사찰 실시를 허용하였으나 북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은 거부하였다.³¹⁾ 1993년 3월 북한은 NPT를 탈퇴하여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 활동 동결을, 북한은 안전보장과 경수로 건설 요구를 발표한다. 하지만 1994년 3월 북한은 IAEA의 사찰에 대해 주권침해 라고 주장하고, IAEA는 북한의 사찰 비협조를 비판하면서 다시 위기가 고조되었다. 더욱이 김영삼 정부가 한미간 팀스피릿 훈련재개와 미국의 팻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미국에 요구하자,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대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미 국방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을 계획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전력생산을 위한 경수로를 제공하고, 북한은 IAEA 사찰허용과 영변핵시설 가동중단에 합의하여 전쟁 위기를 넘긴다. 이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 북미간 국교정상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다.³²⁾

그러나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네오콘(neo-con)을 중심으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동결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과거의 핵 활동은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상호 확증 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서 선제공격(preemption)과 일방주의(unilateralism), 독재국가에 대한 정권교체(regime change)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한다. 2002년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 High Enriched Uranium)을 비밀리에 개발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부시대통령

29) 조명철 외, 위의 책, pp. 74~88.

30) 채규철, "핵 문제의 해법: 기존모델과 북한의 사례 비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2호, 2009, p. 160.

31) 이상우, 『북한정치: 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서울: 나남, 2008, pp. 341~342.

32) Joel S. Wit and Daniel B. Poneman, eds.,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pp. 26~330.

의 특사로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북하였을 때,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우라늄프로그램 개발을 시인하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완전히 파기된다. 이후 미국은 대북 중유지원과 KEDO 사업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 이에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 선언을 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다.

이후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북-미는 9.19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 포기, 북한의 NPT 복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가 채택되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풍계리에서 1차 핵실험을 하였고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서 럽스펠드 국방장관이 사임하고 네오콘은 몰락하게 되어 다시 북미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7년 2월 북-미는 2.13 합의를 통해 1단계 조치로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및 봉인과 미국의 50만톤 중유 제공에 합의한다. 2단계 조치로 10.3 합의를 통해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를 완료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고 관계정상화 및 95만톤의 중유 제공에 합의한다.³³⁾ 2008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만, 2009년 북한은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2010년 스탠포드 대학의 해커(Hacker), 루이스(Lewis), 칼린(Carlin) 교수를 초정해 영변 핵시설 및 초기 개발단계인 25~30Mw 실험용 경수로 시설을 공개한다.³⁴⁾ 이처럼 북한은 리비아와 달리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이로 인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도 함께 발전하면서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였다.

33) 마이크 치노이 저, 박성준·홍성걸 역, 『북핵 물리코스터』, 서울: 시사IN북, 2010, pp. 129~550.
34) 조명철, 위의 책, p. 65.

<표 3>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

단위: 백만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이란	6	6	4	4	2				116	114	27	279
리비아						9						9
미얀마						10						10
파키스탄			4	4								8
시리아	18	35	35	35	35	35	55	20	20	20	20	328
베트남			4	4	44							51
예멘								53	26			79
계	24	41	47	47	81	54	55	73	162	134	47	763

출처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http://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검색일: 2013.06.18).

<표 3>을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은 1994년부터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1995~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는 재앙에 가까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였다. 당시 기아로 인한 질병이 확산되면서 어린이, 노인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대략 280만에서 350만명 정도로 대략 북한 인구의 10~15%정도에 해당된다.³⁵⁾ 그리고 유엔의 제재를 피해 시리아와는 꾸준히 무기 거래를 하였고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오히려 이란과의 무기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북한은 극심한 국내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위험추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리비아와는 달리 북한의 내부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정치적 조건에서 보면, 김정일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 테러 전략과 악의 축 발언으로 대외적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체제 안전 보장을

35) Stephen Haggard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p. 73~74.

위해 NPT탈퇴와 미사일 및 핵실험을 통해서 더 위험추구적인 정책을 취한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보고 위협을 느낀 카다피의 핵개발 포기 결정과는 상반되는 모습인데, 김정일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회피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홍순식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리비아 사례와 비교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설명하는데, 북한의 경우 리비아와는 달리 경제제재가 가해져도 중국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³⁶⁾

<표 4> 최근 5년 남북교역 및 북중무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남북 (A)	1,820,367 (1.2)	1,679,081 (-7.8)	1,912,249 (13.9)	1,713,855 (-10.4)	1,976,208 (15.3)
북중 (B)	2,787,279 (41.2)	2,624,608 (-5.8)	3,465,678 (32.0)	5,629,192 (62.4)	5,930,542 (5.4)
A/B	65.3	63.9	55.2	30.4	33.3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Trade Focus』 Vol.13, No.8, 2013, p. 1.

<표 4>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북교역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북중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될수록 북한의 중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어 손실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지원이 지속되는 한 카다피와 같이 북한 정권 자체의 존립 위기로까지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북한의 김정일은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체제 내부의

36) 홍순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리비아 사례와의 비교.” 『동아연구』 제53권, 2007, p. 527.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으로 인해 북한은 체제의 안보위협 증가로 손실영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러한 손실영역 하에서 대중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해외 무기거래로 외화를 획득하면서 손실감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적극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중 관계와 같은 확실한 우방국과 성숙된 핵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손실영역 하에서 정권 붕괴와 같은 재앙을 회피하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 리비아가 공통적으로 국내적, 국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손실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치적 조건인 국제제재의 효과와 국내정치적 조건인 내부 통제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핵개발에 있어서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북한과 리비아의 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적 조건 비교

		북한의 김정일	리비아의 카다피
국제정치적 조건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 및 봉쇄정책	중국의 북한 지원으로 효과 낮음	효과 높음
국내정치적 조건	체제 결속	내부 통제력이 높음	내부 통제력이 낮음
핵개발 지속 여부		지속(위협 추구)	포기(위협 회피)

V. 결론

한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어떤 조건으로 인해 리비아는 핵을 포기

했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는지를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의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체제 내부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반면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제적 고립과 국내 체제의 통제 불가능성 확대되면서 더 이상 체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정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손실영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회피 전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으로 인한 안보위협 증가로 손실영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 무역 확대와 해외 무기거래를 통해 손실감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적극 활용했다. 따라서 북한과 리비아가 공통적으로 국내외적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손실영역에 있었지만, 국제제재의 효과와 내부 통제력의 유지 여부에 의해 북한과 리비아가 상이한 핵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망이론은 현실주의 이론과 신현실주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국가의 행위를 이익의 관점이 아닌 손실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약소국이나 독재국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전망이론은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정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³⁷⁾

특히, 본 연구는 북한과 리비아의 핵정책 결정의 차이를 국내외적 조건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치심리학적 측면에서 상황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이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사회적 압력이 적을 경우 지도자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는가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점에서 기존의 국제 체제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체제 내적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

다만 본 연구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행위자의 인식변화를 다루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37) McDermott(2001), Ibid, p. 292.

38) 데이비드 페트릭 호튼 저, 김정미 역, 『정치심리학』, 서울: 사람의 무늬, 2013, p. 364.

참고문헌

- 구본학 외, 『세계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데이비드 패트릭 호튼 저, 김경미 역, 『정치심리학』, 서울: 사람의 무늬, 2013.
- 마이크 치노이 저, 박성준·홍성길 역, 『북핵 롤리코스터』, 서울: 시사IN북, 2010.
- 박상현, “비대칭 분쟁과 약소국의 선택: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관점에서 본 포클랜드 전쟁.”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2007.
- _____,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미국 외교: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반테러전략과 한반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1호, 2008.
- 밸러리 허드슨 저, 신옥희 외 역,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9.
- 손용우,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 (1945~2009).”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2.
- 이상우, 『북한정치: 신경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서울: 나남, 2008.
- 이호령, “북한 핵개발의 원인 분석: 북한의 시각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10호, 2001.
- 이현경,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2008.
- 유진석, “비확산정책에서의 당근과 채찍: 기존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1호, 2008.
- 전봉근, “북핵 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호(통권 72호), 2011.
- 조명철 외,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연구보고서 10-2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채규철, “핵 문제의 해법: 기존모델과 북한의 사례 비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2호, 2009.
- 한나 아렌트 저,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2』, 광주: 한길사, 2006.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2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Trade Focus』 Vol.13, No.8, 2013.
-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5권 2호, 2009.
-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1, 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2006.
- _____,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 홍순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리비아 사례와의 비교.” 『동아연구』 제53권, 2007.
- 홍성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 『한국동북아논총』 제55집, 2010.
- Byman, Daniel and Lind, Jennifer,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 Corera, Gordon, *Shopping for bombs: nuclear proliferation, global insecurit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A.Q. Khan netw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Haggard, Stephen. and Noland, Marcus, *Famine in North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Holsti, Ole R, “The Political Psychology of International Politics: More than a Luxury.” *Political Psychology*, Vol. 10, No. 3, 1989.
- Jervis, Robert, “Political Implications of Loss Aversion.” *Political Psychology*, Vol. 13, No. 2, 1992.
- Kahneman, Daniel. and Tversky, Amos,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Vol. 47, No. 2, 1979.
- _____, “Advances in prospect theory: Cumulative representation of uncertain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Vol. 5, 1992.
- Levy, Jack S, “Prospec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etical Applications and Analytical Problems.” *Political Psychology*, Vol. 13, No. 2, 1992.
- McDermott, Rose, *Risk-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spect The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54.
-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ass: Addison-Wesley, 1979.
- Wit, Joel S. and Poneman, Daniel B. eds.,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3, <http://www.imf.org>(검색일: 2013.6.18).
-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http://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 2013.6.18.).

ABSTRACT

Prospect Theory and The Determinant Factors of Nuclear Policy
: Comparing North Korea with Libya

Park, Sang-Woon(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 factors in North Korea and Libya's nuclear policy based on the Prospect Theory. I examine what conditions led to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Libya's nuclear renunci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Kim Jung-il had a strong will to push for nuclear development under strict internal control despite the international sanctions. Qaddafi had the will for nuclear development, but believed it was difficult to protect the regime because the international isolation was intensified while internal crisis was getting out of control. In particular, Seeing the Bush administration attack Iraq on the pretext of the elimination of Iraq'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e adopt a risk-aversion strategy to escape the collapse of regime as the worst case scenario. On the Other hand, Although Kim Jung-il is in the domain of loss because of 'terror of war' strategy in the Bush administration, He play his best cards which alleviate the loss through expanding trade with China and international arms trade.

Therefore, North Korea and Libya have the domain of loss in common, but whether nuclear development is continued or not depends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keeping stable internal control.

Keywords : Prospect Theory, Domain of Loss, Risk-Aversion,
Nuclear Development

투고일: 2013년 06월 26일, 심사일: 2013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2013년 08월 04일